



설교 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



대림벤텔교회 담임 정부용 목사



축사 부총 회장 이상철 장로



사회 총무 김홍성 목사



권면 인권 존중회 이원희 목사



현금기도서울남서지방회 총무 강석준 목사



답사 최의식 장로



인사 및 광고 마상우 장로

• 소외된 이웃을 주님께로 • 군부대 위문, 군복음화 앞장 • 빛의 열매를 맺는 교회(엡5:9)

#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



## 대림벤텔교회 창립 24주년 기념 제직임직 감사예배

**대**림벤텔교회(담임 정부용 목사) 창립 24주년 기념 및 장로장립 안수 집사, 권사 임직예배가 지난 20일(주일) 저녁 7시 영동포구 대림2동 1116-49 동교회 대성전에서 교계인사와 축하객, 성도 등이 대성전과 부속성전 등을 기득 메운 가운데 드려져 24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신 사명을 더욱 열심히 감당하기 위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하늘나라의 귀한 직분을 받는 임직자들을 축복했다.

이날 예배에 앞서 거행된 식전 행사는 조영란 부목사의 사회로 에이레네 어린이 댄스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예비다 청년부 태권도선교팀의 태권도 시범 및 격파, 에이레네 어린이 중장단의 하모니, 에이레네 악기팀의 축하연주, 에이레네 선교단의 경배와 찬양, 교회 24년간의 발자취 소개 영상 등의 시간을 통해 대림벤텔 교회 위해 함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봉사하며 섭기는 단원들의 노력과 헌신을 은혜 가운데 감상하는 시간이 되었다.

곧바로 드려진 이날 예배는 교단 총무 김홍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전국장로연합회 이종복 장로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대림벤텔교회 할렐루야성가대의 찬양,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 당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딤전 1:12 말씀을 본보로 직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어려운 가운데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24년간 성도들과 이웃들을 부育케 하는 일에 전념해온 대림벤텔교회 정부용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한결같이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 수고함으로 이름 디운 결실을 거두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고 “직분을 맡기신 주님께서는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고 전했다. 조 목사는 또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출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임목사를 도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赤복음과 평화를 위해 매진해 나가는 임직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임직을 축하한 뒤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교단과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진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용 목사님을 중심으로 앞으로 더욱 위대한 전진”이 있기를 축복했다.

이어 지방회 총무 강석준 목사의 현금기도, 에이레네 선교단 어머니 댄스팀의 현금찬양으로 예배를 모두 마쳤다. 3부 임직식은 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의 집례로 송명수 외 5명의 장로에 대한 서야, 안수기도, 악수례, 공포, 임직파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전국장로연합회장 이종복 장로는 장로회원패를 증정했다.

집사안수식은 담임 정부용 목사의 집례로 빈의신 외 10명의 안수집사에 대하여 서야, 안수기도, 악수례, 공포, 임직파수여가 있었으며 한필순 외 2명의 권사에 대한 서야, 취임기도, 공포, 임직파수여가 있었다.

임직자 모두는 임직선서를 통해 봉사와 충성, 순종과 헌신, 섬길을 다짐했다. 감사와 축하 순서에서는 교단 부총회장 이상철 장로의 축사, 벤엘찬바이단의 축하연주, 교단 인권존중회장 이원희 목사의 권면, 임직자 대표 최의식 장로의 답사, 교회와 임직자에게 예물증정 시간이 있었으며 교단 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주일저녁 늦은 시기까지 성도들은 순서순서 미다은 혜와 감동을 받았으며 은혜와 사랑이 기득한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대림벤텔 교회 정부용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몸된 교회의 주인으로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